



### 파리協約改正會議 開幕

—2月 4일부터 제네바서—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가 主宰하는 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파리協約의 改正을 위하여 2月 4일부터 제네바에서 同協約加盟國外交會議가 열리고 있다.

3월 8일까지를 目標로 하고 있는 이 회의는 1975년부터 政府間準備委員會등 各種會議에서 眞執하게 學論된 問題들을 다루어 왔었으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번 회의로 미루어졌으며 대체로 어떠한 形態이건 結論을 보게될 公算이 크다.

개정해야 된다는 骨子は 開發途上國으로 自處하는 77國그룹들의 主張인 「개발도상국에게는 外國人所有特許權이 工業發展에 障害가 된다」는 原則을 解消해 보자는 것이다.

파리協約에는 4大根幹이 있으며 内外人平等의 原則, 各國特許獨立의 원칙, 優先權 認定, 不實施特許에 대한 制限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立場으로 본다면 이 規定들이 先進技術國 本位로 活用되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4가지 가운데 불실시특허문제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強硬하다. 그 줄거리인 즉 불실시특허에 非自發的인 獨占實施權을 設定하자는 것이다. 이 원칙이 採擇되어 條文化되면 特許權者 自身도 자기의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진기술국들의 주장이다.

다시말해서 이 條項이 설정되면 制約上出願한 특허가 그 나라에게 權利를 빼앗기는 結果가 되므로 개발도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는 強辯도 있다. 技術料를 받는다 해도 實施者에게 有利하므로 料率 造作의 配려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反面에 개발도상국들은 特許실시권이 인정되어 輸入을 실시로 보지않는다면 선진기업들이 現地에서 生産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點을 노리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들은 製法特許의 효력규정의 撤廢를 要求하고 있다. 理由인 즉 이 규정은 輸入行爲만을 擁護하는 특허 전자보호규정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는 優先權期間을 12個月에서 18개월로 延長 優待하자는 요구도 있다.

이같은 先後進國間의 문제 이외에도 東西의 對立으로서는 發明者證制度이다. 共產主義國家圈에서는 舉皆가 이 制度를 採用하고 있으나 이 制度가 發明자에게 公共住宅의 優先入住權 또는 勳章등을 주며 그 實施權은 國家가 取得함으로써 西方側의 特許制度와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기 때문에 대립의 焦點이 되고 있다.

또 發明자 증에는 有効期間이 없는 點이 특허런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들에게는 絶對的인 致命打가 되고 있으며 이에 隨伴된 紛爭處理등도 자유진영국가들로서 큰 두통거리가 되어 있다.

특히 선후진국간에는 議決處理에 있어 개발도상국들이 壓倒的인 多數인만큼 勢불리 對決할 수 없는 點이 선진국들의 고통거리이며 따라서 이번 외교회의에서도 각 그룹들이 원하는 結末을 얻기에는 너무 辟찬 모임이 될 것이다.

현재의 UN加盟國은 152개국, 그가운데 파리협약가맹국은 88개국이며 77그룹은 결국 88대 77일 수도 있다.

### 特許出願手數料引下

—EPO 檢討끝에—

유럽特許廳(EPO)은 業務開始 以來 그간의 出願手數料問題를 多角度로 檢討한 結果 유럽特許出願에



다른 各種手數料의 適正水準을 策定, 다음과 같이 引下調整하여 實施하고 있다.

特許出願料一覽(單位: DM/도이치마르크)

	公 定 料	代 行 料
1. 유럽特許出願 및 豫備技術調查申請(出願 및 調查回報에 의한 유럽特許廳으로부터 接受하는 모든 規定文書의 回報을 包含함)	1900	500
2. 出願申請과 別途로 豫備技術調查를 依頼할때	1450	150
3. 出願草案을 檢討調整하고 特許抄錄을 作成할 必要가 있을 때는 所要時間에 따라 算定함	從前	從前
4. 出願國의 指定 1國當	225	25
5. 優先權認定書 및 出願日證明申請 一回優先權認定書 次回부터는 各各	從前	從前
6. 優先權請求 1回 次回부터 各各		75 25
7. 發明者指定申請		75
8. 其他文書의 後日申請 예를 들면 優先權認定書의 翻譯(이것은 優先權認定書와, 別途로 申請하면 料金は  따로 請求됨), 微生物等의 寄託發行 申告書		75
9. 審査請求料	1725	150
10. 10件以上の 請求範圍	50	

11. 改正된 手數料	3次	330	60
	4次	440	60
	5次	550	60
	6次	675	80
	7次	800	800
	8次	975	80
	9次	1150	90
	10次 以上	1400	90

(EPO 提供)

微生物寄託條約批准書寄託

—美, 昨年 9月 24日 字로—

美合衆國政府는 지난 79年 9月 24日 特許節次目的을 위한 國際微生物寄託認定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批准(受諾)書를 寄託하였다.

1977年 4月 28日 부다페스트에서 調印된 同條約은 批准 또는 受諾國의 定足數가 達할때 發効日字가 公告된다. (WIPO 提供)

微生物寄託부다페스트條約

—日, 年內加入書寄託準備—

日本政府는 特許出願時의 微生物의 國際寄託에 관한 부다페스트協約에의 加入을 서두르고 있으며 다음 열월 國會에서 同意를 얻는대로 年內에 加盟書를 寄託할 豫定이다.

同協約은 微生物의 菌株國際寄託期間이 30年이며 그의 寄託費用은 一時拂로 되어 있다. 또한 同協約에 加盟하면 가맹한 한 國際機關에 微生物균주를 기탁하면 다른 加盟國에도 기탁한 것으로 同一取扱되는 便宜가 提供된다. (WIPO 提供)



## 에너지節約形態調查研究

—바틸研, 油價高對應着手—

美라텔 콜롬버스研究所는 各國의 에너지節約技術과 製品에 관한 實態등에 대하여 國際的인 規模로서 調查研究에 着手하였다.

이번 事業은 에너지節約分野에서 效果를 보고 있는 기술, 제품을 多角的으로 조사하여 나오는 資料로서 今後의 事業指針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主題는 各國에서 스폰서企業을 募集推進하고 있다.

原油價의 高騰에다가 量的確保의 困難등 때가 때인만큼 各國의 關心이 매우 높은 편이다.

研究調查主題는 太陽에너지利用이라든가 産業프로세스, 空調등 幅넓게 各分野에서 世界各國의 有效한 에너지절약실태를 조사제공함으로써 에너지事情에 對處하려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각국에서 70餘個 企業이 參加하고 있으며 착수될 業種은 材料, 製品, 技術등이다. 특히 資料는 美, 西獨, 佛, 스웨덴 핀란드, 日本등에서의 에너지關聯製品 및 技術에 관한 市場情報로서 쓰여질 것이며 産業設備, 一般빌딩, 住宅分野에 이 미 成果가 컸다는 것이다.

현재 推進中인 연구조사는 빌딩의 構造部材, 各種 機器와 設備, 에너지管理組織, 産業機器와 制御裝置, 材料, 리사이클링, 排熱利用, 代替에너지源등이며 前半部分은 年內에 모두 完成할 豫定이다.

## 遺傳子組替特許出願

—日本서 審査에 쫓겨—

世界的으로 現代科學의 最先端技術로 알려진 遺傳子組替에 관한 기술의 特許出願에 대하여 日本特許廳도 今年부터 不得已 審査해야만될 處에 놓여 있다.

同特許는 制度的으로 開放하였고 이미 출원에 따라 公開된 것만도 20餘件이 되어 審査가 不可避한 實情이다. 이들 출원가운데에는 美GE에서 출원한 「微生物 및 그 調劑方法」등의 發明이 있으며 모두가 日本外 國家의 企業出願들이다.

그가운데 3件이 審査請求되었으나 日本의 立場으로서는 어디까지를 請求範圍로 심사하느냐가 頭痛거리이다. 遺傳子組替研究에 대하여는 지난 6月の 日本科學技術會議에서 겨우 實驗指針에 대한 中間案이 發表되어 이제부터 유전자조제연구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特許廳을 비롯하여 科技廳등에서는 매우 慎重한 態度를 취하고 있다.

## 地對艦미사일開發에 着手

—日, 防衛産業強化를 위해—

日本防衛廳은 陸上自衛隊用地對艦미사일인 SSM의 新規開發에 着手하여 試作의 主契約은 三菱重工業, 關聯契約은 川崎重工業 및 富士重工業과의 締結을 決定하였다. 그리고 同미사일에 積載할 제트엔진은 三菱重工業에 發注하게 된다.

이 SSM개발에는 防衛産業界의 技術開發力量을 總動員할 計劃으로서 三菱, 川崎, 富士의 3社로 하여금 設計팀을 構成하고 試作은 三菱이 中心이 되어 川崎와 富士가 協力하는 形態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日防衛廳은 80年代를 精密誘導軍裝備(PGM)時代로 보고 PGM개발에 注力할 豫定이다. 이로써 日本은 防衛産業의 側面에서는 空對地미사일(ASM)에 이 어 두번째의 精密誘導軍備를 推進하는 것이다.

SSM은 100km정도의 內陸에서 沿岸의 艦艇攻擊用미사일이며 82年度부터 개발에 착수하면 8년에는 매듭을 지을 豫정이다. 이에 따른 뜻대로 되면 對艦, 對空戰鬪指揮裝置도 개발할 構想을 갖고 있다.